

조계종 정보발굴조사단 문화재청 지표조사기관으로 선정

불교유적발굴 '청신호'

폐사지들의 지표조사와 발굴이 보다 전문화·체계화되고, 전국 사찰에 소장되어 있는 성보문화재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될 전망이다.

불교유적만을 조사·발굴하기 위해 97년 설립된 조계종의 불교문화재 발굴조사단(단장 일철, 이하 발굴조사단)이 1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필요한 폐사지나 불교 유적 발굴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의 지표조사기관 선정은 지난해 7월 건설공사시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선정된 기관은 건설공사 시공자의 요청

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정된 지표조사기관은 모두 110여 개소. 여기에는 중앙승가대의 불교사학연구소, 동국대의 서울·경주박물관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문적인 조사와 발굴을 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게 문화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불교유적의 조사와 발굴에는 고고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가람배치와 불교미술 등을 포괄하는 학문적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굴조사단은 고건축, 역사고고학, 불교미술사 석·박사 전공자들이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사지를 발굴·복원하는 ▲유적조사, 각종 문화재를 조사하는 ▲불교미술, 금속·목재·서화 등을 보존 처리하는 ▲보존과학, 문화재자

료를 전산화하고 도록을 발간하는 ▲자료축적 등의 분야를 담당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일철스님은 "발굴조사단은 전국 2천여개의 폐사지를 연차 사업으로 조사·발굴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성보문화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걸친 폐사지는 2천141개. 이 가운데 97.8%는 미발굴 상태로 방치돼 있으며 각종 도시 개발과 토목공사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굴조사단은 ▲정밀 지표 조사 ▲시굴 및 발굴 ▲사지 규모 및 역사 규명 ▲중요 사지 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강화도 소재 39개 폐사지에 대한 정밀 지표 조사를 실시한다.

또 '성보문화재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성보 실재 조사 ▲성보 분류 및 전산 입력 ▲1910년 이전의 성보 정밀 조사 및 지정 신청 ▲도록 및 보고서 발간 등이 진행된다. 사업은 조계종 산하 1천840개 사찰의 1만 2천212점의 불교문화재를 대상으로 10여 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월경사 본·말사는 '성보 정밀 조사'까지 완료해 1910년 이전 성보 가운데 139점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덕사·직지사의 본·말사는 성보박물관에, 동화사·고운사의 본·말사는 성보연구원에, 불국사 본·말사는 사찰문화연구원에 각각 '성보 실재 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다.

성보문화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전국의 모든 성보가 전산화되면 매매를 목적으로 한 도난은 줄고, 도난당한 불교문화재의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02)739-1830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보물 제200호 남산 철불암 마애석불. 보살상이 본존불을 향하고 있는 것이나 가슴이 깊고 다리가 짧은 점 등을 보아 7~8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록 전망 밝다

유네스코 조사단 '긍정평가'

통일신라시대의 불국토의 이상이 구현된 경주 남산(사적 311호)을 중심으로 한 '경주 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하 협의회) 조사단 니시무라 유키오(동경대교수·도시계획과)는 13일 경주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산 등 경주지역 5개 유적지구에 대한 현장 답사 결과 문화재 정비가 잘 돼 있었으며 유적 보호 및 정비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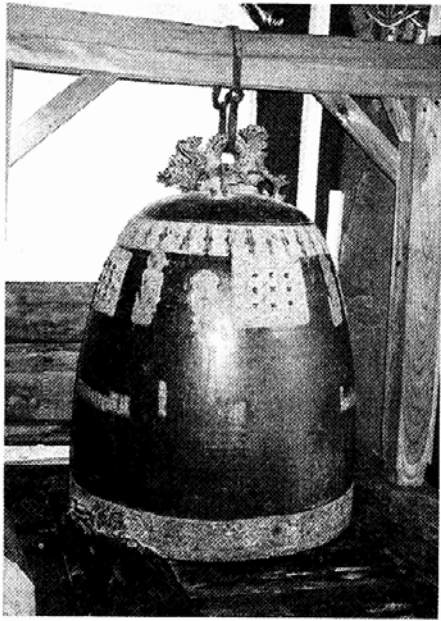
유키오 조사단은 10일부터 4일간 남산, 황룡사지, 첨성대 등 경주의 세계문화유산신청지역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답사 결과는 3월말까지 협의회 집행이사회에 '평가보고서' 형식으로 제출되는데, 이 보고서는 사실상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의장단회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최종 등록 여부는 12월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열리는 제24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강경환 문화재기획실장은 "이제까지 우리가 등록을 신청했던 5건의 문화유산이 모두 적격관정을 받았다"며 "현지조사 결과를 지켜봐 오겠지만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지난해 6월 남산·월성·대릉원·황룡사·산성지구 등 5개 유적지구에 대한 유산 지정을 신청했다. 특히 남산지구에는 철불암 마애석불 등 보물 13점과 사적 11점 등 국가 지정문화재들이 산재해 있어, 그동안 국내·외 학계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록 기준에 손색이 없다고 평가해 왔다.

우리 나라는 1995년에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과 종묘가, 97년에는 창덕궁과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오종욱 기자



◇경기도 안성군 청룡사 동종.

사인비구 동종 7구 보물지정

문화재청은 15일 '사인비구 조성 동종' 7구를 보물로 지정했다. 사인 스님의 강화동종은 이미 63년에 보물 11호로 지정된 바 있어 스님이 남긴 8구의 종의 모두가 보물로 지정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한 사람의 작품이 전부 보물로 지정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8구의 보물급 종을 빚어낸 사인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동국대 문명대 교수는 "사인스님은 조선 숙종 때의 인물로 경상도와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했으며 전라지역의 김여립과 생략을 이룬 승장이었다"고 밝혔다.

스님의 생몰연대는 확인할 자료가 없다. 남아 있는 것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종 8구와 거기 새겨진 명문이 전부다. 또한 8구의 종은 조성시기에 있어 20대 후반에서 70대에 걸쳐 50년이라는 시간편차를 갖고 있어 그의 작품세계변화 과정을 확인해 보여준다.

이에 대해 오랫동안 사인을 연구해온 안국숙 박사는 스님의 작품세계를 3단계로 나눠 "1단계는 모방과 창의력이 함께 구사되는 성장기로 보

경사 종이 여기에 해당되며 2단계는 20대에서 50대까지로 강한 사실주의 중심의 고유한 조형세계를 개척해가던 때로 김홍사 종, 수타사 종 등 5구가 여기에 속하며 3단계는 중국의 양식을 자신의 조형세계와 결합시킨 시기로 청계사 종과 보물 11호 강화동종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동종들은 ▲경북 포항시 보경사 서운암 동종(1667년 제작) ▲경북 문경시 김홍사 동종(1670년 제작·직지사성보박물관 소장) ▲강원도 홍천군 수타사 동종(1670년 제작) ▲경기도 안성군 청룡사 동종(1674년 제작) ▲서울 화계사 동종(1683년 제작) ▲경남 양산시 통도사 동종(1686년 제작) ▲경기도 의왕시 청계사 동종(1701년 제작) 등 총 7구이다.

사인스님의 마지막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는 인천 강화군 강화 동종(1711년 제작)은 보물지정번호 제11호에서 제11-(8)호로 바뀌었다. 오종욱 기자

성보박물관 실무자 교육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일철)는 24~26일 직지사서 2000년도 제1차 성보박물관 실무자교육을 실시한다. 성보박물관장 및 학예연구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김홍식(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씨가 '유물관리' '유물포장' '보존처리' 등을 강의한다. 또 '성보박물관장 간담회'가 마련돼 '정기모임' '삼불관' 규정 등이 논의되고,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2000년 사업계획 △협조 및 교류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보박물관 종사자들의 유물관리·전시·조사 등 학예업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0547)436-6009

구미 도리사서 울리는 에밀레종소리

배명진교수 '전자신종' 기증

구미 전자신종을 제작했던 숭실대학교 배명진 교수(정보통신과)가 에밀레 종소리를 재현한 전자종을 제작, 신라불교 최초 가람인 도리사(주지 법등)에 기증했다.

구미전자신종 제작과 관련 구미와 인연을 맺었던 배 교수는 신라 불교 발상지인 구미(도개면 모래원)인데다 도리사가 신라 최초의 유서 깊은 사찰이란 사실을 알고 불교 문화의 산실인 도리사에 에밀레 종소리를 재현한 전자신종(높이 40cm, 직경 28cm)을 기증키로 한 것.

배교수는 "이번에 제작한 전자신종이 1천300여년

간의 침묵을 깨고 21세기 불교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소리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법등스님은 "전자신종을 극락전에 설치, 법회시 타종할 계획"이라며 "전자신종의 설치로 유서깊은 도리사 종보는 물론 도리사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자신종은 작은 모형종에서 나오는 레이저 빔이 전자신종의 몸체를 비추면, 그 순간 신종 내부에 있는 스피커에서 장중한 소리가 울린다. 이 소리는 1m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다. 오종욱 기자

볼만한 TV프로

'차향을 찾아서'

센츄리TV 24일 방영
차시배지 쌍계사등 조영

우리 차(茶)의 그윽하고 단아한 향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케이블TV 다류교양 채널인 센츄리TV(ch29)는 24일 밤9시부터 60분간 한국차의 시배지와 제조법 등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한국의 맛과 향기-차향을 찾아서'를 방영한다.

이 프로에서는 가마솥에 열을 가해 차잎을 넣고 뒤어 내는 뒤물차의 제조법 등을 시연을 통해 현장감 있게 소개한다. 또 우리나라 차의 본향인 지리산 화개면 쌍계사 근처의 차나무 시배지와 1939년 이후 조성된 전남 보성 녹차 재배지 등도 영상으로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특히 초의선사를 비롯해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 등 많은 스님과 학자, 예술가 등과 인



◇ '한국의 맛과 향기...'는 한국차의 역사와 제조법등을 다큐멘터리로 조영했다.

연이 깊은 해남 일지암을 찾아, 차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는 장면은 이 프로의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조현철PD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시내 찾집에 가면 서양차를 파는 곳이 많아 한국차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될 때가 많았다"며 "차를 사랑했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우리차의 맛과 멋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현대의학은 간경화, 전이된 암 환자들을 왜 효과도 없는 치료 술을 써서 죽음으로 내모는가?

제3의학 의단요법 疑團療法은 간경화, 전이된 암 환자 분들을 공개 임상 치료에 초대합니다. 이 공개 임상 치료에 방승사, 언론사, 사회단체, 종합병원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공공단체가 참여하여 치료 사실을 공명정대하게 확인하여 알림으로써 현대의학이 포기한 불치병으로 죽어 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새 삶을 줍니다.

1. 현대의학의 허구성

- 현대 의학을 한다는 의사, 약사들은 질병의 증상 자체만을 병으로 보고 그 증상을 제거하면 치료라 믿고 생각합니다.(대증요법) 그리하여 질병부위를 잘라내고(수술), 항생제, 항암제 등의 약물을 쏟아 붓고 있는 최고 최선의 치료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수술은 신체의 완전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원치할 수 없는 부작용이 따르고, 독한 약물은 인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면역력(저항력)을 철저히 파괴하여 오히려 환자의 몸을 전체적으로 빨리 죽게 만듭니다.
- 전이된 암, 간경화 등의 중병을 수술에 의하여 완치된 환자가 몇 명(또는 몇%)이나 되며, 항암제, 항생제를 가지고 치유된 환자는 또 몇 명 또는 몇%나 됩니까? 항암제,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생명을 연장시켰거나 반대로 항암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환자가 빨리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올바른 치료방법의 판단기준(척도)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또는 거의 대부분의)환자들이 누구나 완치되는 것이 진정한 척도 일뿐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환자 사망하는 치료방법은, 그것이 제 아무리 최고 최선의 현대의학에 의한 치료방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치료자의 자기만족 내지 변명일 뿐 진정한 의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현대 의학을 하는 의사 약사들이 암, 간경화 등의 난치병에 대하여 수술과 독한 약물요법으로 접근하여 의학적으로 최선의 치료를 하겠다고 하면서 환자를 죽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무지함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요, 세상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 그들은 암, 간경화 등을 난치병 내지 불치병이라고 하니, 그들의 치료방법이 잘못되어 그런 것일뿐, 달리 접근하면 그러한 질병들은 만성질환에 불과하지 결코 난치병,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신의학 의단요법 疑團療法 의 치료 일정과 치료 효과

의단요법疑團療法의 치료 일정은 월 1회 6월7일 또는 3회 4일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한다. 치료 효과는 누구나 7일 이내에 나타나며 탁월하고 경이로운 분 부작용은 조금도(1%) 없으며, 치료의 승패는 3회(2개월)치료를 환자의 치료 결과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호과의 예로써 간 경화 환자를 예시하면 합병증이 온 비대성성 환자는 정기적으로 투약을 해야 할 것이나 본 의단요법疑團療法은 첫 치료일 부터 투약을 끊게 하나 환자의 현상은 고통이 사라지고 합병증인 식욕부진, 복수, 황달 등등의 증상은 3회(2개월)치료를 받으면 완쾌할 수 있으며 전문의사의 검진 결과 증상의 호전으로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이제는 생명이 지장이 없습니다 라는 소견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치료로서 외형적 현상으로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원치로 오인을 함이 치료의 가장 큰 장애 원치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2. 완치를 책임지는 확실한 치료법 - 신의학 의단요법 疑團療法

(1) 신의학 의단요법 치료원리 疑團療法 治療原理

만성질환이 발생하는 신체적 근본원인은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이므로 그 불균형을 개선하여 주면 질병 자체가 소멸됩니다. 호르몬분비의 불균형이 생기는 원인은 생물적 목적의식 目的意識과 주관적 의식 主觀的意識 사이의 갈등 때문입니다. 유사한 이론으로 양의사분들이 성인병의 발병원인의 하나로 스트레스를 드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2) 신의학 의단요법 疑團療法의 치료 대상 및 책임 보장 보상금

현대 의학상 치료 불가능한 병을 알고 있으면서, 6개월 이상 자력으로 할증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만성질환의 환자로서, 6개월 이상 1년간 정기적으로 월 1회 의단요법疑團療法을 치료받은 환자 10명중 9명 이상 완치를 책임 보장합니다. 만약 치료 후 병원 검사 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오면 치료비를 돌려 드리는 물론, 덧붙여 치료 지연 보상금 일천만원(1000만원)을 부상합니다.

4. 완치된 사람을 소개

종합병원에서 치료 불가 시한부환자라는 확진을 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본인을 만나 의단요법 치료를 받고 완치된 사람들 10여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0100 (女) (290101-2000829) (치매, 파킨슨병)	2. 강00 (女) (330426-2268011) (전이된 자궁암일기 환자)
3. 조00 (女) (540308-2822514) (유방암 1cm의 혹)	4. 홍00 (女) (540707-2622129) (말기 간경화 간이식수술 접수))
5. 김00 (男) (800228-1109811) (만성신장병)	6. 황00 (女) (700921-2548011) (신경다발성경화증)
7. 신00 (女) (800308-2823015) (정신장애)	8. 강00 (男) (420310-1820921) (말기간경화, 당뇨 환자)
9. 정00 (男) (460902-1552523) (간경화, 간암 환자)	10. 서00 (男) (610830-1629725) (암 환자)
11. 장00 (女) (601005-2829118) (전이된 유방암 4cm 간에 1~2cm크기의 다수의 혹)	

3.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차례입니다.

만성질환 치료에 최대의 적은 치료효과도 없는 기존의학자식의 노예가 된 전문 의사 약사라는 사실을 지면을 통하여 환자 분들에게 밝히고자 함이 있으며 치료란 모름지기 완치를 전제로한 치료방법만이 진정한 의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경화, 암 등 난치성 만성질환들은 의단요법疑團療法으로 볼 때는 난치병이 아닙니다. 환자 여러분들은 효과도 없는 기존의학에 자신의 생명의 시간을 착취당함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관하는 바랍니다.

http://www.no3medical.co.kr/ ☎ 032-3478-119~8 ☎ 011-559-811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400-3 동우 B/D 405호

新醫學 疑團療法 의단원 대표 理 農